

임주연 (여) 19살: 활발하고 의리가 있으며 때론 거침없다. 성인이 되는 걸 두려워한다. 뭐든 자신의 단짠인 주성과 나누길 좋아한다. 말투도 과격하고 거침없지만 그 누구보다 여리고 정이 많다.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어머니와 늘 갈등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성을 찾으며 하소연을 한다. 주성의 자살 사건 이후로 사건 당일 신었던 새 신발을 안 신는 행동과 이전과는 확연하게 말 수도 적어지고 자신이 주성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쳐간다고 생각한다. 같이 죽기로 약속하고 홀로 떠난 주성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주성의 손을 놓고 홀로 도망친 자신에게 증오심을 느낀다. 그 누구보다 친구에 대한 상실감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아파했지만 결국 세상은 이전과 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에 분노도 하고 속상함도 느낀다.

S#.7 / 사건 당일 / 주성의 집 안방 / 오후

문을 열자 막걸리병과 소주병으로 엉망인 안방 한 가운데 흐트러진 낡은 이불 사이에 토사물을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주성의 아빠.

주성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

주성, 아빠에게 다가가려다 실수로 소주병을 발로 건드려 소주병이 방 바닥에 쓰러지면서 주성의 양말을 적신다. 주성, 바닥으로 시선을 옮기자 소주병 사이에 농약이 눅혀져 있어 빈 병임을 알고는 곧장 허리를 숙여 앉아 슬픔을 토해낸다.

주성

(감정에 북받쳐)

나 혼자 뭐 어쩌라고...왜 혼자만 죽어 왜

때마침 울리는 주성의 핸드폰 벨소리

주성, 전화 상대가 주연인 것을 확인하고 눈가를 손목으로 대충 닦고는 곧장 전화를 받는다.

주성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주연아...나

주연, 주성의 말을 끊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주연

V.O

주성아...엄마가 나 같은 게 무슨 대학이냐고... 돈 아깝대

씨발, 나 이딴 촌구석에서 평생 썩을 바엔 그냥 죽고 싶어...

주성, 아무 말없이 주연의 말을 듣다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는 초점 없는 시선으로 대답한다.

주성

진짜 죽자.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

주성,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에서 낡은 신발을 신고 나간다.